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Mozambique: ExxonMobil faces major sanction delay at giant Rovuma LNG project

ExxonMobil이 주도하는 Rovuma LNG 프로젝트(모잠비크)의 최종투자승인(FID)가 2023년으로 지연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됨. 비용과 시황에 대하여 ExxonMobil과 파트너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. (Upstream)

## European contractor poised to win trio of offshore deals from Saudi Aramco

사우디 Aramco가 주도하는 세계의 EPC계약 수주관련하여 이탈리아의 Saipem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보도됨. 해당 계약은 Berri, Abu Safah 및 기타 해양공사로 알려졌다으며, 글로벌 EPC업체 10 곳과 체결한 LTA(long-term agreement) 계약의 일환이라고 보도됨. (Upstream)

## 동성화인텍, 현대중공업에 초저온보냉재 공급

동성화인텍은 현대중공업과 1,050.9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및 에탄운반선용 초저온보냉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.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1.5%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2024년 2월 28일까지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두산퓨얼셀, 한국조선해양과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 '맞손'

한국조선해양이 두산퓨얼셀과 선박용 연료전지를 개발한다고 보도됨. 양사는 MOU를 체결하고 메가와트(MW)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(SOFC)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향후 해상 실증을 위해 조선/해양 분야 연구개발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도됨. (연합뉴스)

## CMA CGM, 중국에 컨테이너선 대량 발주

프랑스 선사 CMA CGM이 스크러버탑재형 5,500TEU 컨테이너선 10+10척을 중국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보도됨. 계약규모는 12억달러이고 조선사는 Qingdao Bdi Hai Shipbuilding Heavy Industry와 Yangzijiang Shipbuilding이라고 보도됨.

## NewTimes, 13,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수주

중국의 New Times Shipbuilding이 13,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선주는 그리스 Chartworld이며 척 당 선가는 1.05억달러라고 보도됨. 1차선의 납기는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